원성열 기자의 CAR & TRACK 수소전기차 넥쏘 시승기

5분 충전하면 600여km 거뜬

오염배출 없고 전기차보다 월등한 수준
양산 차량 첫 RSPA 등 첨단 사양 갖춰
수소충전소 미비, 높은 차량가격 걸림돌

자동차

수소가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활용하는 수소전기차는 어떤 오염 물질도 배출하지 않는 꿈의 자동차다.

2013년 현대차는 세계 최초로 투싼 수소전기차 양산에 성공했고, 이듬해인 2014년 4월 미디어 발표회와 함께 시승행사를 열었다. 당시 짧은 시승코스에서 투싼 수소전기차를 시승할 때만 해도 수소전기차는 여전히 먼 미래인 것처럼 느껴졌다. 과연 대중화가 가능할까라는 의구심도 들었다. 당시 수소전기차 한 대 가격은 1억원이 넘었고, 최대 주행가능거리는 450km 수준이었다.

하지만 5일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열린 '넥쏘 미디어 익스피리언스 데이'에서 타 본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쏘(NEXO)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혁신으로 가득했다. 고양에서 평창까지 250km 구간을 넥쏘를 타고 달렸다.

●히터·열선 키고 음악 들으며 달려도 여유

넥쏘는 실내외 디자인, 주행가능거리, 새로운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적재공간, 혁신적인 첨단 사양 등 모든 면에서 획기적인 진화를 이룬 미래형 SUV이자 차세대 수소전기차다.

일단 주행가능거리가 기대를 훨씬 뛰어넘은 609km다. 1세대와 비교하면 200km 가까이 늘었다. 경쟁자인 전기차와 비교해도 월등한 수준이다. 국내에서 운행중인 전기차 가운데 가장 긴 주행거리를 자랑하는 쉐보레 볼트 EV의 주행가능거리는 382km다. 실제로 시승해 보면 볼트 EV 정도만 되도 충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주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느껴진다. 하물며 609km라면 가솔린이나 디젤차 같은 내연기관차와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

주행 감성은 놀라운 수준이다. 이전에 탔던 어떤 전기차와 비교해도 훨씬 조용하고 편안하다. 토크가 높은 편은 아니어서 급가속을 할 때 다소 더디게 느껴지지만, 고속도로에서 서행하는 앞 차를 추월하기는 충분한 가속력을 낸다.

특히 전기차와 비교해 인상적이었던 것은 히터와 열선을 켜고, 음악을 들으며 주행을 해도 남은 주행가능거리가 급격히 줄지 않는다는 점이다. 바로 전기를 직접 생산하며 주행하는 수소전기차의 특성이자 최대 장점이다. 자율주행시대가 도래하면서 차량에 더 많은 전자장비가 달리고,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더 다양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소전기차는 전기차보다 훨씬 유리하다.

짧은 충전 시간도 매력적이다. 평창으로 이동 도중 여주 휴게소에 마련된 수소충전소에서 경험한 충전 시연은 감탄을 자아내기 충분했다. 전기차는 급속 충전을 해도 1시간 내외가 걸리지만, 수소전기차는 5분이면 된다.

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도 넥쏘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현대차 최초로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뿐 아니라, 하차했을 때도 주차와 출차를 자동으로 지원하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RSPA, Remote Smart Parking Assist) 시스템을 장착했다. 연구용 차량에서 시연한 적은 있지만 양산차량에 이 기술이 적용된 것은 최초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 및 일반도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차로 유지 보조'(LFA, Lane Following Assist) 기능도 있다. 여타 차량의 차로유지 보조 장치보다 훨씬 정교하게 차를 중앙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앞차와의 거리 및 속도를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어드밴스드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함께 사용하면 반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물론 아직 풀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수소충전 인프라 확보, 합리적인 수소 가격 책정, 수소전기차의 가격을 낮추는 것 등이 급선무다. 현재 국내 수소 충전소는 12곳에 불과하다. 차량 가격도 1세대 1억5000만원 수준에서 현재 6000여만원 수준(정부 보조금 포함하면 4000만원 초반)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높다. 수소 가격도 걸림돌이다. 1kg당 1만원 내외는 되야 경쟁력이 있다. 하지만 아직 수소 가격은 정해진 기준이 없다. 현대차는 정부와 함께 올해 수소충전소를 36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평창 |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 주요 제원

1회 충전 주행 거리	609km
완전 충전 시간	5분
적재공간	839L
모터 최대 출력	135.0KW
모터 최대 토크	394.0NM
제로백 가속 성능	9.7초
복합연비	96.2km/kg

현대차의 차세대 수소연료전기차인 넥쏘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SUV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609km라는 세계 최장 항속 거리와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 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을 갖춰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 현대차

한국타이어, 아우디 '뉴 RS4'에 타이어 공급

한국타이어가 아우디의 고성능 슈퍼왜건 뉴 RS 4 아반트(The new RS4 Avant)에 초고성능 타이어 벤투스 S1 에보2(Ventus S1 evo²)를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한다. 아우디 뉴 RS4 아반트는 최고 출력 450마력, 최대토크 61.2kg.m를 자랑하는 고성능 차량이다.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되려면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테스트 트랙으로 불리는 독일 뉘르부르크링 노르트슐라이페 트랙에서 극한의 조건에 맞춰 초고속 주행을 마쳐야 한다. 이 검증을 통과한 한국타이어의 프리미엄 타이어 벤투스 S1 에보2는 고속 주행에 최적화된 타이어로 획기적인 3중 트레드 블럭을 적용, 마모가 진행될수록 접지 성능이 향상되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원성열 기자

더 뉴 쏘렌토 '넘버원 에디션' 출시

인기 사양 기본 적용, 가격도 할인

기아차가 인기 트림에 선호 옵션을 적용한 '넘버원(No.1) 에디션'을 출시했다. 2월에 출고하면 28만원을 추가 지원 받아 3152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사진제공 | 기아차

기아차는 고객 선호 트림인 프레스티지에 2.2 디젤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 스마트 내비게이션과 스타일UP 패키지 등을 기본으로 갖춘 '넘버원 에디션'을 12일 출시한다.

가격은 동일한 조건으로 개별 품목을 선택할 때보다 60만원 저렴한 3180만원이다.

2월 안에 출고하는 개인 및 개인 사업자 고객은 '넘버원 쏘렌토 2.2 업그레이드 혜택' 이벤트를 통해 28만원을 추가지원 받아 3152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더 뉴 쏘렌토 2.2디젤 모델은 지난해 국산 중형SUV 최초로 8단 자동변속기가 탑재해 단기간에 2만대 넘게 팔린 인기 모델이다. 더 뉴 쏘렌토는 지난해 7월 출시 후 12월까지 5개월간 총 3만6011대가 판매됐으며 이 중 2.2디젤 모델이 57%(20,453대)를 차지했다.

더 뉴 쏘렌토에 탑재된 8단 자동변속기는 13.4km/L라는 동급 최고수준 연비(2.2디젤, 5인승, 18인치 기준 복합연비)를 구현했다. 아울러 가속력이 향상되고 소음진동은 줄어 더 부드러운 주행감성을 구현했다. 원성열 기자

경제현장.jpg KT 평창동계올림픽 Y원정대 출정

KT는 10일 평창동계올림픽 응원을 위한 'Y원정대'를 출범했다. 이날 출발에 앞서 Y원정대는 서울 광화문 KT 스퀘어에서 출정식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뒤 파이팅을 외쳤다. Y는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젊은'세대를 위한 KT의 서비스 브랜드다. 온라인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100명의 20대 고객은 강릉 '5G 커넥티드'를 방문해 신기술을 체험하고, 쇼트트랙 경기도 관람했다. 사진제공 | KT

CJ E&M 모터스포츠팀, 오일기·정연일 듀오 영입

오일기(왼쪽)와 정연일 선수.

CJ E&M 모터스포츠팀(감독 이정웅)이 2018년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슈퍼 6000 클래스에 참가할 새로운 드라이버 라인업을 발표했다.

주인공은 국내 최정상급 드라이버인 오일기와 정연일 듀오다. 두 베테랑의 영입으로 CJ E&M 모터스포츠팀은 2018시즌 챔피언을 노릴 강력한 라인업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일기 선수는 "새로운 팀원과 차량에 적응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올해 우리 팀은 시리즈 챔피언을 노릴 것이고 개인적으로 개막전이 기대된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연일 선수는 "오일기 선수와 조합은 상상하지 못했다. 오 선수에게 많이 배울 것이고,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며 함께 레이스 트랙에서 싸워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CJ E&M 모터스포츠팀의 이정웅 감독 역시 "2016년 팀 출범 이래 최상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두 드라이버와 우리의 시스템의 시너지를 통해 우승을 노려보고 싶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는 4월 21일과 22일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경기장에서 열리는 개막전을 시작으로 총 9라운드 경기를 펼친다. 원성열 기자

더존비즈온, 600억 건물 매입 시끌

공시의무 위반해 7450만원 과징금
소유권 확보 해결 안돼 이전 차질

SD 신문고

㈜더존비즈온이 지난해 투자 결정한 집합건물과 관련해 자산양수 관련 중요사항을 기재 누락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금감위 산하 기구)는 최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더존비즈온에 74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존비즈온은 지난해 5월8일 서울 성동구 뚝섬로의 토지와 지상 집합건물을 600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하고 당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는 '매도인이 건물의 일부 소유자이며, 타인 소유부분 중 일부는 경매 진행 중인 사실' 등 투자판단 관련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증권선물위원회가 더존비즈온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재인 셈이다. 실제로 더존비즈온이 '600억원 양수 결정'을 공시한 당일 더존비즈온의 주가는 6.18% 올랐다.

●최대 지분 소유자도 몰랐던 계약

더존비즈온이 양수 공시를 낸 해당 건물에는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소유권자가 200명이고, 그중 가장 많은 38% 지분을 가진 A 씨는 세금 압류와 파산 등이 걸려 있는 상태다.

지난해 9월14일 정정된 공시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은 매도인이 타인 소유 부동산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한 뒤 넘겨받는 것으로 계약했다. 또 압류로 인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소유권을 확보한 뒤 더존비즈온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조건이다.

최초 공시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다. 다만 회사와 양도인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건물 일부에 처리될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모든 건물에 대한 완전한 매수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공시된 셈이다.

해당 건물 최대 지분 소유자인 A 씨는 "당시 더존비즈온과의 거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압류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등기상 소유자가 거래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공시가 된 점은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존비즈온 "공시 누락 있었지만 거래엔 문제없어"

더존비즈온 측은 공시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거래 자체에는 절차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건물의 양도인이 이미 대부분의 소유권을 확보했고, 경매가 진행 중인 지분에 대해서도 채권을 양도인측이 매입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거래는 2018년 2월 8일까지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다. 소유권 확보 후 이전이라는 절차에 난항을 겪으면서 잔금 처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양수기준일은 지난해 9월15일이었으며 정정 공시된 양수기준일은 지난해 12월15일이었다.

더존비즈온 측은 "시가 1000억원대의 부동산을 비교적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었기에 다소 복잡한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계약했던 것"이라며 "법률적인 검토는 다 마쳤고,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재훈 객원기자 jjh@donga.com